

이슈브리핑
Issue Briefing 

20120313 vol.78

한류 4.0,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과 연계 필요 - 「한류원형문화권」설정을 중심으로 -

Contents

- I. 논의배경
- II. 한류(韓流)와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의 연계방안
- III. 한류원형문화권 구축방안
- IV. 추진방향과 전략

Issue Briefing

연구진 정명희 연구위원 mhjyung@hanmail.net



전북발전연구원

※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
※자란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(www.jthink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3월 13일 vd.78 발행처 : 전북발전연구원
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길로 1696(효자동3가 1052-1) TEL : 063280-7100 FAX : 063286-9206
※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.
※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(www.jthink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C O N T E N T S

한류 4.0,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과 연계 필요
- 「한류원형문화권」설정을 중심으로 -



I. 논의배경	1
II. 한류(韓流)와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의 연계방안	
1. 한류의 생성과 확산	3
2. 한류관련 정책동향	5
3.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과 한류의 연계방안	6
III. 한류원형문화권 구축방안	
1. 한류원형문화권의 개념	8
2. 한류원형문화권의 세부 추진사업	9
IV. 추진방향과 전략	13

I. 논의배경

-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경제적, 문화적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한류에 대한 학술적, 정책적 관심 증대
 - 한류(韓流)는 1990년대 후반부터, 중국 대만, 태국, 베트남 등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경향으로, 한국 대중문화의 유통현상을 이르는 말임
 -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가요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의 열풍, 한류(韓流)가 확산되었으며, 한류는 점차 국가브랜드가 되어 ‘K-pop’ 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음
 -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도 한류의 생산유발효과가 3조 9,600 억원으로, 이는 2천만원대 자동차 약 24만대의 수출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음
 - 서비스·제조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류로 인해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82.8%, 매출이 증대했다는 기업이 51.9%로 나타났으며, 분야별로는 문화(86.7%), 관광(85.7%), 유통(75%)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(대한상공회의소, 2012. 3.)
 -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대중문화로 시작된 한류가 공간적으로는 미국, 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, 내용적으로는 드라마·영화·음악 등의 대중문화에서 한글·한식 등의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
-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가 “문화발신지”로 전환하기 위한 한류의 문화가치 창출 및 한국문화의 매개방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대두
 -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근세까지 중국에게서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화해 일본에 전해주는 문화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, 일본이 서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근대부터 문화교류의 역전현상이 지속되어 왔음
 - 드라마와 대중가요가 중심이 되었던 ‘한류’는 우리나라가 문화발신지로, 문화수출국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큰 문화적 의미가 있음
 - 한류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류가 소수 아티스트의 천재성과 대중문화코드의 유연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견들이 대두되고 있음
 - 특히, 태권도에서 시작된 한류 1.0, 대중문화콘텐츠 중심의 2.0, K-pop 중심의 3.0 시대를 거쳐 이제 한류 4.0 시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종합적 전략이 요구됨
- 한류라는 문화적 흐름을 확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공공프로젝트 필요
 - 현재의 한류는 한국의 전통문화보다 서구문화와 융합함으로써 서구문화 도입의 대리욕구 충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유행으로 지나갈 수 있으며, 문화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한류의 지속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
 - 특히, 지난 10여년간 진행된 “한류”는 대중문화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삶과 철학,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
 - 재즈가 흑인문화를 대표하고 스시가 일본문화를 대표한 것처럼 한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

- “K-pop 음악의 대부분은 힙합, R&B 등 흑인음악과, 유럽음악의 변형된 사운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원천은 한국적인 것이 별로 없음”(이동연, 2012)
- 한류의 파급력과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, 한류라는 문화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, 무엇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
- 한류는 유·무형의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사항이므로 우리 문화의 가치재발견과 문화정체성 확립, 한국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민간과 결합된 국가적 전략수립이 필요함

○ “포스트 새만금” 전략으로서 전라북도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방안 모색 필요

- 지난 20년간 전라북도 지역발전정책의 중심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있었으나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의 정책적 중심전환이 요구되고 있음
- 특히, 기초자치단체간 발전계획의 연계 및 지역특화 성장동력의 발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역개발 및 관광 전략과 연계된 문화적 발전전략을 검토·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
- 경상북도 유교문화권과 3대 문화권 사업은 이런 점에서 참고할만한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음
 -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라북도의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이었다면 1조 5천여억원 규모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지역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음
 - 경상북도는 유교문화권이 종료(2010년)됨과 동시에 유교문화권 사업에 가야문화, 신라문화를 결합한 3대 문화권 사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였음
 - 정책적 편중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일관적인 방향으로 추진·발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 지자체에 시사하는 바가 큼
- 전라북도에서 “포스트 새만금”을 이끌어갈 지역발전전략은 1)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유·무형의 전통문화자원과 연계되어야 하며, 2) 14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포괄·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

II. 한류(韓流) 와 전라북도 전통문화자원의 연계방안

1. 한류의 생성과 확산

○ 한류(韓流)의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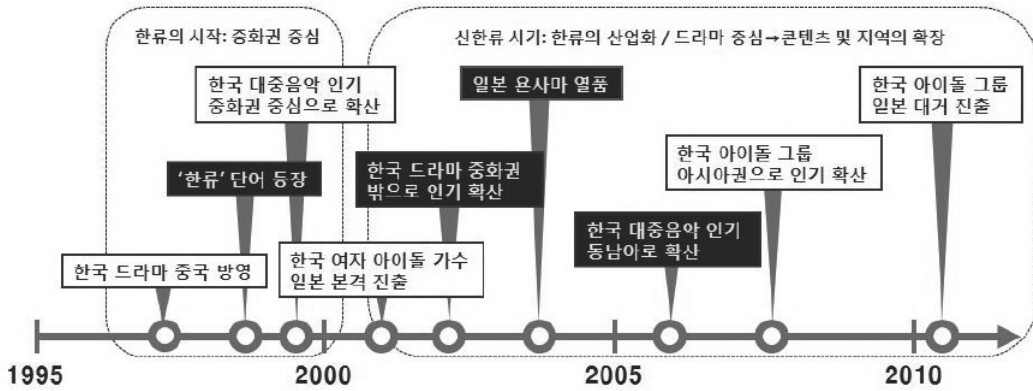
- 한류는 중국에서 젊은이들의 유행을 의미하는 단어인 ‘寒流’를 변형한 신조어로서, 드라마와 대중가요 등 한국의 대중문화 붐을 의미하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음
 - “한류”가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가 아닌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을 가르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“한국문화에 대한 열풍”, “한국 대중문화 바람” “한국 대중문화 열기”, “한국 대중문화 붐”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
- 한국문화에 대한 열풍이 공간적으로는 중국, 일본 등 아시아에서 유럽, 미국으로 확대되고, 문화내용은 대중문화 중심에서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류의 개념도 “한국 물결(Korea Wave)”이라는 의미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

○ 한류의 확산

- 한류는 9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“한류”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한류의 시작은 1960년대 태권도의 전파부터로 볼 수 있음
- 태권도는 1960년대 미국에 태권도인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, 현재 전세계 7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임
 -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 참여하여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로 성장하였으며, 144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음
 - 태권도는 한국인의 정신과 생활을 세계에 전파한 한류시작이라 볼 수 있으나, 지금까지 무술의 측면에서 태권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화적 흐름으로 확대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
-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드라마와 음악 등을 중심으로 대중문화 콘텐츠가 아시아로 확산되었던 시기를 한류 2기라 볼 수 있음
 - 한류드라마의 전성기와 함께 음악,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“한류”라는 이름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
 - 그러나,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는 우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문화현상으로, 일부 기획사와 엔터테이너의 천재성의 의존도가 높아 민족문화와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음
- 2000년대 후반 이후 K-POP 중심의 ‘신한류(新韓流)’로 명명되는 흐름을 한류 3기로 구분할 수 있음
 - 한국콘텐츠가 K-POP 등으로 다변화하고 한국문화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, 내용적으로는 대중문화에서 한국문화 전반으로, 수용층은 중장년 여성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왔음
- 혐한류(嫌韓流) 등의 위험요소가 있기는 하나 한류는 내용적으로 다양해지고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, 한류의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

[표 1] 한류의 발전단계

구분	한류 1기 (한류 1.0)	한류 2기 (한류 2.0)	한류 3기 (한류 3.0)
시기	1960년대~	1997년~2000대 중반 이후	2000년대 후반 ~ 현재
한류분야	무술(태권도)	대중문화 한류 (드라마, 영화, 게임)	한국문화 한류 (K-POP, 태권도, 한스타일, 문화예술)
주요 콘텐츠	태권도	드라마, 음악, 영화, 게임 (김치, 한식)	음악(K-pop 아이돌 그룹)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콘텐츠 (한글, 한식)
주요지역	미주지역	중화권과 아시아 (중국, 대만, 일본 등 동남아시아)	전세계 (아시아, 미주, 유럽)
수용층	태권도인	중장년 여성층 - 멜로드라마의 인기와 남성한류스타 주축 (배용준, 송승헌 등)	전 연령층 -(음악) 아이돌 및 걸그룹 인기, 10~20대 젊은층 -(드라마) 사극 인기, 중장년 남성층 유입



〈그림 1〉 한류의 등장과 확산과정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2011), 한류의 성공과 제약요인

2. 한류관련 정책동향

○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정책과 발전방향

- 한류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필요하지만 국가단위의 정책대응은 지금까지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
-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, 한류의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짐
- 그러나,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류라는 문화흐름을 국가단위의 문화정책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지역적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임
- 한류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세계문화와 소통하겠다는 기존의 문화정책과 맥을 같이하여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

○ 한류문화진흥단의 출범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(2012)

- 2012년 문화부는 케이팝(K-pop) 중심의 대중문화 한류를 우리문화 전반에 걸친 케이 컬처(K-culture)로 육성하겠다는 산업적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
- 한류문화진흥단 설립을 통해 “대중문화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문화를 전통문화, 예술, 관광, 스포츠”까지 확장하고 한국문화의 르네상스를 주도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음
- 2012년 우선 추진사업으로 1) 전통문양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2) 한국 고유의 공간과 디자인 명품모델 개발 3) 한국문화유전자의 현대적 해석 및 관광자원화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음
- 정부는 한국문화의 대중화, 정보화, 세계화를 통해 한국문화 전반에 한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류문화진흥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예정임

○ 한(韓) 스타일 육성 종합계획(2007~2011)

- "세계문화와 소통하는 한국문화의 새로운 문예부흥시대 실현"을 비전으로 한(韓)스타일이라는 전통문화의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전략임
- 우리문화 원류로써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한식, 한복, 한옥, 한지, 한글, 한국학 등 여섯개 분야를 세계적인 분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음

○ 기타

□ 민족문화원형복원사업(2006)

- 문화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민족문화원형 복원을 비롯한 복원자원의 창작자원화 사업인 민족문화원형 복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
- 이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구축 등 문화원형 발굴과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과 산업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이라 할 수 있음

□ 신한류 진흥 및 확대를 위한 4대 역점추진과제(2010)

- 한류가 확대되면서 문화부는 신한류 진흥을 위한 4대 과제(한류정보장터, 글로벌 한류지도,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사업, 문화교류 확대)를 발표하였음

□ 한류월드 개발사업

- 한류월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고양시 일원에 한류를 문화콘텐츠로 산업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테마파크, 방송미디어시설, 호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
- 한류월드는 호텔 등 숙박업소와 한류문화콘텐츠 소비·유통 중심의 테마파크,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2014년에 개장하며, 연간 관광객이 1,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- 한류를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선도적인 한류관련 지역정책(지역개발사업)임

○ 정책적 시사점

-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의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문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시도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
- 특히,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담긴 전통문화를 현대사회에서도 적합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
-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과 공공부문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, 현재의 사업들이 지나치게 (디지털)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, 새로운 하드웨어 구축 및 지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부답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은 향후 한류관련 정책의 과제라 할 수 있음

□ 「한류원형문화권」의 범위

- '한류원형문화권'은 한식, 한국음악, 한문학 및 한국정신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가시적인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범위가 설정되며, 국내 동일 지역에서도 동일한 문화요소가 분포하여 나타날 수 있음
- 다만, '한류원형문화권'은 이중 전통문화요소의 중요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음식, 종교, 소리, 태권도 등을 내용적 범위로, 이러한 문화요소가 극명하게 도출되는 지역을 범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

III. 한류원형문화권 구축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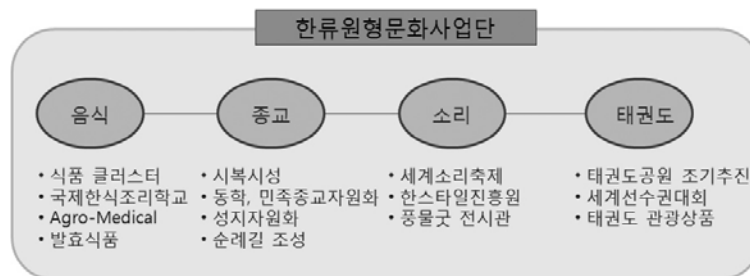
1. 한류원형문화권의 개념

○ 한류원형문화권의 개념

- 국내 유·무형 전통문화자원의 연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류의 원형이 되는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체계임
- 한국 '정신(精神)'을 표현할 수 있는 종교, 태권도와 한국인의 '신명(神明)'에서 비롯된 소리, 그리고 음식자원 등의 문화적 원형을 보존·계승·활용함으로써 문화적 창조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임

○ 한류원형문화권의 4대 핵심분야

- 호남물산의 집산지로서 형성된 다채로운 음식문화를 식품클러스터, 한식조리학교, Agro-Medical 클러스터, 발효식품 등과 함께 한국 음식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킴
- 종교·사상적 측면에서 공간적, 시간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종교자원과 종교문화원형에 대한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함
- 풍류음악, 풍물놀이,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음악을 보존·계승하고 국악공연물과 함께 대중음악과 접목시킬 수 있는 한국음악 생산과 유통의 거점으로 개발
- 태권도를 무술의 관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태권도 공원의 조속한 추진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새로운 정신문화 거점으로 육성



2. 한류원형문화권의 세부 추진사업

○ 한류원형문화대학원 설립

- 국가차원에서 한류원형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연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원과정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
-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할수 있는 인재의 양성은 국가적 과제이나, 현재의 기획사 중심의 인재양성은 한계가 있음
-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원형문화와 연계된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, 기존의 HK 사업 등과 연계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함

○ 한류원형문화사업단 거점 구축 및 연계

- “문화”의 범위가 다양한 만큼 한류원형문화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, 한류원형문화권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의 구심점이 필요함
- 한류원형문화권에 대한 기초연구 진행과 함께 분야별 한류원형사업을 리드할 수 있는 한류원형문화사업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음. 한스타일이 6개 분야로 설정되었듯이 한류원형문화도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로 중심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전라북도 한류원형문화권은 음식, 종교, 소리, 태권도 등으로 설정하였으나 한류원형문화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한류원형문화사업단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확대·연계가 필요함

○ 음식문화

□ 전라북도 음식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

- 음식은 가장 독특한 문화적 요소로, 전라북도는 호남 평야의 쌀, 서해의 젓갈 등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형성하여 “맛”의 대표이미지를 가지고 있음
- 전라북도는 전통음식 뿐만 아니라 식품클러스터, 발효식품, Agro-Medical 클러스터, 한식조리학교 등 미래형 음식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
- 국적 항공기에 전주 비빔밥이 기내식으로 제공될 만큼 전라북도 음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“맛”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거점으로 발전 가능함



□ 세부 추진사업

- 1) 국제한식조리학교의 국가 운영
 -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세계유명조리학교와 같이 한식조리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함으로써 한식의 국제화와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조성
- 2) 발효식품엑스포 및 한국음식축제의 확대운영
 - 현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효식품엑스포 및 한국음식축제를 국가단위에서 확대·운영함으로써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음식산업화 거점으로 조성
- 3) 국가식품클러스터와 Agro-Medical 클러스터
 -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조기추진 및 확대운영
- 4) 한국음식 대중화 사업
 - 스토리뱅크 구축 및 전통음식의 브랜드화를 통해 음식문화의 대중화

○ 종교문화

□ 전라북도 종교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

- 정신적 추구를 위한 세계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종교문화를 통한 문화정체성을 구체화한 국가적, 지역적 발전전략들이 부각되고 있음
- 전라북도는 천주교, 불교, 개신교, 원불교와 민족종교 등 다양한 종교의 산실로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며, 특히 종교간 화합의 상징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음
 -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종교유적자원의 10.1%, 유물자원의 8%를 보유하고 있으며, 불교, 원불교, 천주교, 개신교 뿐만 아니라 동학을 중심으로 민족종교가 발달한 지역으로 역사적·물리적으로 풍부한 종교자원을 보유하고 있음



□ 세부 추진사업

- 1) 시복시성 및 세계종교행사 추진
 - 전라북도는 한국천주교 최초의 순교지를 보유하고 있으며,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교간 화합의 상징공간으로서 다양한 세계종교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- 2) 민족종교의 자원화 사업
 - 동학, 모악산 중심의 다양한 민족종교 자원의 다양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자원화 사업

3) 종교자원의 성지화 및 관광자원화사업

- 천주교의 성지인 치명자산 성지화사업, 원불교 성지화사업, 개신교 관련 근대문화유산의 성지화 사업 등 각 종교의 성지화사업과 관광자원화 사업

4) 종교순례길 구축

- 정신적 가치추구와 도보여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“아름다운 순례길” 등 종교순례길을 확대·운영하여 종교문화체험 거점 구축

○ 소리문화

□ 전라북도 소리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

- 전라북도는 한국 전통음악의 본향으로써 풍류음악, 풍물놀이,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음악 자산을 보존·계승하고 있으며, 특히 판소리문화가 발달해 왔음
-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판소리를 주도한 상당수가 전북 출신이며, 국악의 성지,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등의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전주대사습, 세계소리축제 등 전통 소리관련 유무·무형의 거점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음

□ 세부 추진사업

1) 아태무형문화유산 전당 및 한스타일진흥원의 국가 운영

- 국가예산으로 구축된 전통문화관련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하여 직접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의 전당을 한류원형문화권의 주요 거점으로 국가에서 적극 활용·운영하며, 한스타일진흥원도 시대변화에 따라 명칭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한류원형문화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

- 지역에 있는 문화인프라 하더라도 경북의 국학연구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국가적 문화정책의 인프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2) 전주대사습놀이 및 세계소리축제의 확대 운영

- 한국음악의 원형과 한류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주대사습놀이와 세계소리축제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



3) 소리아카이브 및 소리문화체험관 구축

- 최근 한국음악 악기의 음원 및 소스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한국음악의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음악의 원형구축사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
- 현재 남원에 구축 중인 소리아카이브 사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판소리, 농악, 풍물 등을 포함한 소리문화원형 및 첨단기술과 연계한 체험관 구축

4) 소리길 구축

- 남원 고창, 전주까지 이어지는 소리길 구축을 통해 지역 소리문화자원의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

○ 태권도

□ 전라북도 태권도 문화자원의 현황과 특성

- 2004년 무주에 태권도 공원 조성이 확정되고 2006년 태권도공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(聖地)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음
-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태권도 명품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2013년 태권도 공원이 1차 완공이 되면, 태권도 성지로서 전라북도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
- 태권도 공원은 세계 7천만 태권도인들의 성지로서의 위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나, 한류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를 체험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


□ 세부 추진과제

1) 태권도 공원의 조기완공

- 현재 태권도 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, 국가적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검증된 만큼 사업을 조기완공할 필요가 있음

2) 청소년 마음치유 및 정신단련 프로그램으로 태권도 프로그램 운영

- 국내·외 청소년의 심신수련 수단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무술을 직접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보조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

IV. 추진방향과 전략

-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원형문화를 연구하고 프로모션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.
 - 국가차원에서 일회성 이벤트 보다 한류원형문화대학원 설립 및 한류원형문화사업단과 같은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프로모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공공, 민간 각 분야별로 한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,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함
 - 국가차원에서 해외 한류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는 해외문화원의 역할강화 및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과 차별화된 문화교류를 지속해야 함
 - 현재 국내에 있는 해외 문화원 역시 전통문화강좌 및 영화상영, 자국어 강습 등은 물론 유학 및 어학연수 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- 한류원형문화권의 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연구 및 사회적 공문화가 필요하다.
 - 한류원형문화권 조성사업은 대중문화 중심의 문화적 흐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구체화된 대안이라 할 수 있음
 - 기존 문화권 설정이 대부분 역사, 지리적 문화요소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류원형문화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후속연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
 -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류관련 정책과 연구동향을 종합·분석하고 심화연구를 통해 국가사업으로써 한류원형문화권 추진에 대한 논리구축이 필요함
 - 문화권에 대한 기초연구는 민속학, 역사학, 고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제 간 공동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, 전북발전연구원에서도 한류원형문화권구축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임
- 전라북도가 전통문화 중심지역이므로, 전국의 전통문화예술인과 연대하여 국가사업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
 - 지역의 전통문화자원과 지역개발사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계획을 구체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
 - 특히,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전통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한류원형문화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시켜 새정부의 문화발전전략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
- 한류원형에 대한 국가적 논의기구의 구심적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.
 - “한류원형추진단”과 같은 논의기구를 조기에 출범하여 전라북도가 새로운 한류시대의 물적·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
 - 특히, 학계·행정·정치권이 연대하여 정책의 내용을 심화시키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

○ 지역적 차원에서 기존의 전통문화도시 사업을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.

-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1단계가 종료되고, 2단계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류를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
- 공간적으로는 전주 중심에서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하고,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하드웨어 구축사업에서 시스템과 기초자치단체 사업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함
- 특히,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한류원형 문화권의 사업이 심화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

〈참고문헌〉

- 고정민(2009). 『한류,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』.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.
- 김교빈(2005). “한국전통문화 콘텐츠 세계화 전략 과 인문학의 역할. 『인문콘텐츠』, 5: 287~294.
- 박경열(2012). “전라북도 광역단위의 문화권 설정 방안”. 전북관광포럼 working paper.
- 서민수(2012). “K팝의 성공요인과 기업의 활용전략”.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, 841호
- 이은숙(2002). “중국에서의 한류 열풍 고찰”. 『문학과 영상』, 31~59.
- 정명희(2009). 「전라북도 통합문화권 설정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」. 전북발전연구원
- 정명희 외(2011). “광역권 개발전략을 위한 전라북도 통합문화권 설정”.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54호.



이슈브리핑
Issue Briefing



전북발전연구원

560-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(효자동3가1052-1)

Tel.063-280-7100 Fax.063-286-9206

www.jthink.kr